

# 강진에 체험형 축산테마공원

## 작천면 5ha에 동물농장·미술농장 등 개발

강진군에 동물농장을 활용한 체험형 축산테마공원이 조성된다. 강진군은 작천면 축산연구소 터 5ha에 감성, 재미, 흥미를 제공하는 체험형 축산테마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20일 밝혔다.

강진군은 축산테마공원을 ▲목장마을 사무소 ▲울타리 없는 동물농장 ▲목장놀이학교 ▲미술농장 등 크게

4구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목장마을 사무소에는 종합안내를 담당하는 목장안내소, 농·특산물 판매장, 동물모양의 랜드마크형 체험 건축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울타리없는 동물농장은 방목형 동물놀이터, 수변 동·식물 관찰 학습공간, 동물관리사 등으로 구성해 동물

먹이주기 등 체험이 가능하도록 꾸미기로 했다. 목장놀이학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미술농장에서는 조사료와 건조단 등 목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한 미술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남도 축산연구소 주관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운영상황

등을 분석해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 강진군의 계획이다. 강진군은 축산테마공원이 가깝다 위 관람객에게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관광자원화,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나주시의원 관광성 외유 빈축

## 22~28일 중·싱가포르 연수 일정 대부분 관광지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관광성 외유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일행이 22일부터 28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중국과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떠날 계획이다.

연수단은 나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7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당초에는 14명의 시의원 전원이 외유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3명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1인당 210만원으로, 시의회는 혁신도시 성공 유지와 도시발전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연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세부일정을 보면 요양원 3곳과 싱가포르 도시개발계획청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관광지로 구성돼 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 일일 관광과 홍콩 해양공 관람, 심천 민속촌 관람, 마카오 타워 견학 등 대부분 혁신도시 발전 모형을 위한 벤치마킹 목적보다 관광성 외유가 강하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서울에 '강진학사' 운영

**지역 고교출신 인재 기숙사**  
**신입생 4·재학생 4명 모집**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강진군이 서울에서 공부하는 지역 고교출신 인재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한다. 강진군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옛 서울사무소 104㎡를 리모델링, '강진 학사'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생활할 대학생 8명(신입생 4명, 재학생 4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진학사는 생활실(2인1실), 취사실, 세탁실 등을 갖췄다. 강진군은 관리자 1명을 채용하는 등 학사를 직접 운영하지만 여건상 급식시설은 두지 않기로 했다.

강진군 내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에 합격했다가 재학하는 여학생이 이

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10만원이다. 강진군은 학사 시설이 소규모로 수용인원이 적은데다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대학 합격생 75%가 여학생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희망자는 강진군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류를 내려받아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입생과 재학생의 성적, 생활여건 등이 반영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장성 '명품 대봉곶감' 본격 출하** 200여 농가에서 생산하는 장성 곶감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대봉' 품종을 이용해 만드는 장성곶감은 당도가 뛰어나기로 유명해 올해는 기록적인 한파로 당도가 더 높아졌다. <장성군 제공>

# 장성호, 조정훈련지 '각광'

## 경관·편의시설 좋아... 국가대표 상비군 전훈

전국 최고의 수상스포츠 메카로 자리잡은 장성호(湖)에서 조정 국가대표 상비군의 전지훈련이 한창이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인 장성호에서 현역 문식 감독을 비롯한 조정 국가대표 상비군 35명이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중이다. 이들은 관내 숙소에서 머물며 장성호 조정경기장과 문화센터 내 헬스장 등

에서 기초체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장성호가 조정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뛰어난 자연 조건과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경기장, 장성문식 감독을 비롯한 조정 국가대표 상비군 35명이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중이다. 이들은 관내 숙소에서 머물며 장성호 조정경기장과 문화센터 내 헬스장 등

방송실, 샤워장, 휴게실 등 각종 현대적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 장성군은 문화센터 내 헬스장과 장성아카데미하우스의 각종 편의시설을 개방해 선수들의 체력단련과 스트레칭 해소 등 컨디션 조절을 지원하고 있다. 현 감독은 "장성호는 천혜의 경관과 함께 4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과 물결이 적고, 추운 겨울에도 수면이 얼지 않아 훈련장으로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훈련팀이 장기간 장성에 머물면서 유형, 무형으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귀농·귀촌인 체계적 기초 영농교육

**담양농기센터**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종환)는 귀농·귀촌인, 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담양에 주민등록을 마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이다. 교육 과정은 영농정착기술 교육과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교육 등 2개 과정이다.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교육은 읍면의 농업인상담소 등을 통해 사전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평가 후 심의를 통해 5농가를 선

정, 5개월 동안 선도농장에 입주해 선배농업인으로부터 영농체험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실습교육이 실시된다. 연수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8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5개월 동안 지원하고, 연수실습생을 채용한 선배농업인에게는 멘토수당(40만원)을 별도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061-380-3431. /담양=정재근기자 jgg@

# 남원시, 전통시장 현대화

## 18억 들여 환경개선·토요주말장터 운영

남원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남원시는 유통업체의 확장과 소비생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공설·용남·인월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8억원을 들여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경영활성화사업, 온누리 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택배사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해 국비확보를 통한 시장특성 발굴·개발, 관광자원개발, 지속발전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공설시장을 남원의 대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월시장은 저리산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토속적인 음식·농산물 제공 등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토요주말장터를 운영한다. 또한,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액을 23억원으로 정하고 상품권 판매 5% 할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상인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유관단체(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이용 및 온누리 상품권 구입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남원시 경제과 박경찬 담당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경영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 음주운항 '꼼짝마'

## 군산해경,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강화

지난해 전북과 충남 일부 해상에서 발생한 음주운항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자 해양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장항항 앞바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로 7.93t급 여객선 운반선을 운항하던 선장(51)을 적발하는 등 새해들어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이 지난해 적발한 음주운항은 11건으로 2011년 3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단속 음주운항이 10건, 음주운항 사고는 1건으로 집계됐다. 11척 모두 어선 또는 양식장 관리선이며 적발된 곳은 군산 7건, 부안·서천 각 2건이다. 이처럼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자 해

경은 선박의 항포구 입출항시 적극적인 음주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황의영 교통레저계장은 "음주운항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05% 강화돼 선상에서 한두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을 수 있다"며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를 금할 것을 주문했다. 음주운항을 했을 때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기구(단속수치 0.08% 이상)는 기구 무게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북

## 개교 10주년 완주 '한국게임과학고' 급부상

# 각종대회 석권하고 취업도 호조

완주에 소재한 '한국게임과학고'가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는다. 2004년 3월에 문을 연 게임과학고는 3년간 '게임'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국내 유일의 게임특성화 고교. 학년당 선발하는 100명에게 콘텐츠키워드, 게임프로그래밍, 3D에니메이션, 사운드디자인, e-스포츠 등 6개 과목을 수준별로 가르치고 있다. 학생 중 70%는 전북도 이외의 전국 각지에서 온 게임 애호가들. 올해도 100명 모집에 120여명이 모일 정도로 해마다 이곳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10년 전 설립 당시만 해도 '게임'의 인기가 많지 않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 측도 게임

산업의 발전으로 응시율이 높아져 자 반석이다. 작년까지의 졸업생은 420여명. 개교 10년의 연륜은 각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기능대회에서 2011~2012년 연속으로 '은상'을 수상했다가 하면 중소기업청 주관의 '전국창업대전'에서도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해마다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 1억 원을 지원받아 벌인 '엡창작터' 사업에서 최진운(3학년) 학생이 만든 '퍼즐포털'이란 모바일앱이 인터넷에서 1만여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곳을 나온 학생들은 대개 컴퓨터공학과나 게임관련 학과로 진출하거나 창업을 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단신

## 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 학생 670명 선발

올해 미국과 호주 등지로 해외연수를 떠날 전북도내 학생 670명이 선발된다. 인재육성재단은 오는 4월1~12일 신청서를 받아 시·군 서류평가 및 면접을 거쳐 67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초등학생 448명, 중학생 174명,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23명으로, 지난해 630명보다 40명 늘었

다. 육성재단은 초·중학생의 경우 여름방학에 먼저 50%를 보내고 겨울학기에 나머지 학생을 연수시킬 계획이다. 연수 나라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 등 4개국이다. 고교생은 12월부터 12주간에 걸쳐 호주 한 곳에서 연수를 받는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전북도, 숙박시설 용자금 이자 보전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여관,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에 대해 전북도가 용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전한다. 도는 일반 숙박시설 업주가 객실 규모 30실 이상의 일반호텔이나 관광호텔로 전환하기 위해 도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10개 시군은 10월부터 돈을 빌리면 3억원 한도 내에

서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용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 관광레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정읍, 산사태 취약지 중점 관리

정읍시는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와 산림 재해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전문가 등 10명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 산사태와 토석에 의한 피해 여부 평가, 대피장소와 경계·피난체계 마련, 안전대책 강구 등을 맡는다.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취약지역을 고시하는 한편 집중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과 연차별 사방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js@

## 사회복지모금회, 아동 야간 보호사업 확대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간 보호사업을 확대한다. 사랑의열매는 이번 사업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에 50개 기관을 선정하고 총 12억72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야간 보호사업은 방과 후 야간에 홀로 남은 저소득층 아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토요일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복권기금에서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를 야간보호교사로 채용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겨울산행 탐방객 북적** 모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인 20일, 무주군 설천면 국립공원 덕유산 일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가족, 동료와 함께 나온 1만여명의 탐방객이 즐거운 겨울산행을 즐겼다. /연남뉴스